

## 대한경제

VOL. 2, NO.04 (발행일 : 2026. 01. 26)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81745549330144>

- 키워드 : 모듈러

## 대승엔지니어링, 고층 모듈러 코어 건식화 도전장

기사입력 2026-01-19 06:01:11

- | 강판전단벽 기반 강구조 코어 실험
- | 강판 두께 2~4mm 범위 달리 적용
- | 반복 가력에도 구조적 건전성 유지
- | 부재 교체 · 유지관리 용이 등 강점
- | 품질 균일성 중요 공공주택 등 적합



충남대 강구조내진공학연구소에서 수행된 강판전단벽 기반 강구조 코어 내진 실험 모습. / 대승엔지니어링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대승엔지니어링이 고층 모듈러 건축 코어(계단실 · 엘리베이터)에 관행처럼 적용돼 온 철근 콘크리트(RC) 특수전단벽 중심 구조를 건식화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장타설이 필요한 습식 RC 코어 대신 강판전단벽(SPSW) 기반 강구조 코어로 모듈러 건축의 빠른 시공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대승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학교 강구조내진공학연구소에서 강판전단벽 기반의 강구조 코어와 모듈러 결합구조(기둥, 보, 접합부 시스템)를 연계한 내진성능 검증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강판 두께를 2~4mm 범위로 달리 적용하며 전단 성능과 비탄성 거동은 물론 구조물 경량화 가능성 까지 동시에 실험했다.

그 결과 반복 가력 이후에도 모듈러 결합부와 주요 철골 프레임은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했으며, 지진 에너지는 강판 전단벽에서 의도된 소성거동과 전단좌굴 형태로 집중 소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판 두께 2mm 실험체의 하중저항능력은 약 540kN(킬로 뉴턴), 3mm 실험체는 620kN, 4% 실험체는 670kN으로, 강판 두께가 증가하면서 더욱 높은 하중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81745549330144>

- 키워드 : 모듈러

### 대승엔지니어링, 고층 모듈러 코어 건식화 도전장

전체적으로 전단 패널의 좌굴 거동이 발생했으며 모듈러 결합부와 주요 골조는 건전성을 유지했다. 이는 파괴가 아닌 제어된 손상 메커니즘으로, 강구조 코어와 모듈러 결합구조가 일체로 작동하는 성능 기반 설계 개념이 실험적으로 구현됐다는 분석이다.

보통 건물은 지진이나 바람에 견디기 위해 가새(X자 모양 뼈대)를 넣거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데, 강판전단 벽은 그 자리에 얇은 철판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쓰인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대비 비싼 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쓰이지 않았으나, 모듈러 건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이 이어지는 추세다.

그동안 계단실 ·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축물의 첨추 역할을 하는 코어 부분을 콘크리트 벽으로 현장 타설하면 양생 시간이 소요돼,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러 건축 시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판전단벽 기반 강구조 코어는 부재 교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자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성이 중요한 공공주택 및 중고층 모듈러 사업에 적합한 대안 구조가 될 전망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강민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듈러 건축물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소요되는 RC 코어 대신 강판전단벽 기반의 강구조 코어를 적용하면 바로바로 쌓을 수 있어 공기단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단순 재료비는 강재가 콘크리트 대비 비싸지만, 인건비와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경제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승엔지니어링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인증 획득 및 실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승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실험은 단순 구조 검증을 넘어 모듈러 결합구조와 강구조 코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검증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공주택과 도심 고밀 개발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81317041490120>

- 키워드 : BIM

### 2030년까지 기계설비 시장 50조원으로 육성

기사입력 2026-01-19 06:00:21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기계설비 산업을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노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만료되는 1차 계획의 성과를 잊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 정화설비 등을 통해 건축물에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계설비 산업'으로 설정하고, 현재 약 40조원 수준인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5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S.M.A.R.T'라는 5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체계 구축(Sustainability)'에 나선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그중 약 70%가 기계설비에서 소비되는 만큼 설비 효율화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계설비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의 탄소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탄소저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단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기계설비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취약 건축물의 설비 개선을 위한 평가 기준도 수립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및 제도의 체계적 고도화(Maturation)'도 추진된다.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제기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과감히 합리화한다. 특히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재 명칭 등 기계설비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며, 기술기준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 성장 기반 조성(Adaptation)'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기계설비 공사에 특화된 품셈 DB와 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을 구축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유지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81317041490120>

- 키워드 : BIM

### 2030년까지 기계설비 시장 50조원으로 육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Reliability)’ 역시 핵심 과제다. 설계 및 감리 단계의 검증 절차를 내실화하고, 시공 품질 관리체계를 확립해 부실 시공과 하자를 예방한다. 최근 빈번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기계설비 특화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재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Technology)’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기계설비에 특화된 BIM 설계 표준과 라이브러리를 고도화한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자율운전, 에너지 최적 제어 기술(BEMS) 등을 도입해 기계설비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기계설비 산업이 2030년 50조원 규모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029169280387>

- 키워드 : BIM

“집, 개인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2026 부동산트렌드’ 발간

기사입력 2026-01-20 13:31:00

| 부동산 3대 키워드와 7대 트렌드 제시

### TREND 2026



사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2026 부동산 트렌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사는 국내외 사회 변화, 부동산 시장과 정책 분석, 학계 및 기업 전문가 의견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선정해왔다.

‘2026 부동산 트렌드’에서는 2026년도 부동산 3대 키워드와 7대 트렌드가 선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3대 키워드는 △강요된 선택 △공간 · 진화 △탄성한계 늘리기로 선정됐다.

‘강요된 선택’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압박받는 상황을 뜻한다. AI·초개인화 흐름 속에서 가치 소비가 강조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좌절은 결국 실용성을 우선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간 · 진화’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공간이 적응하며, 아파트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탄성한계 늘리기’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생존을 우선하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AI 활용, ESG 경영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버팀목을 확장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7대 트렌드는 △실용의 재발견 △소유보다 경험 △무마찰 소통 △적시적변 △내 곁의 케어 △표면장력 △그린프리미엄으로 제시됐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029169280387>

- 키워드 : BIM

### “집, 개인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2026 부동산트렌드’ 발간

‘실용의 재발견’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유보다 거주 가치와 효용을 중시하는 ‘비자발적 실용주의’ 속에서 주거 선택의 선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유 보다 경험’은 주거는 장기 소유가 아닌 생활 플랫폼으로 인식되며 서비스 결합형 주거와 렌털·구독 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무마찰 소통’은 사람들은 감정적 부담을 줄이는 선택적 소통을 선호하며, 이 흐름이 공간 선택으로 이어져 공유 라운지와 포커스 공간, 코리빙 주거의 확산이 예상된다.

‘적시적변’은 개인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 지면서 주택은 가변형 구조와 AI·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적응형 주거공간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내 곁의 케어’는 AI와 IoT 기반 스마트홈 고도화로 주거는 거주자 상태를 인식하고 원격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예상된다.

‘표면장력’은 ESG 압력과 인력·비용 제약 등을 돌파할 해법으로 AI·자동화와 BIM·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프리미엄’은 비친환경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이 커지면서 ZEB 설계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전환이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를 총괄한 이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대표는 “집은 더 이상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생활·서비스가 결합된 ‘개인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353090680430>

- 키워드 : 스마트건설

### 건설기술인협회, 스마트건설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6-01-20 14:14:4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와 스마트건설교육원(이사장 박영태)는 20일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건설기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교육받을 경우, 협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정보를 공유하게 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면 회장은 “협회는 지난 해 국토안전교육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건설기술인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100만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20579300299>

- 키워드 :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① 모듈러 특별법 '스탠바이'…건설 패러다임이 바뀐다

기사입력 2026-01-20 06:00:17

| 탈현장 건설 대전환 본격화

| 정부 초기 수요창출 의무화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건설산업이 현장 시공에서 공장 제작 중심의 탈현장 건설(OSC)로 대전환한다. 인력난, 안전사고 등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듈러 건축 지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쳤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한준호(더불어민주당)·윤재옥(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1명은 최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건설의 제조업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다. 주목할 대목은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는 등 정부가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발주·도급 방식도 개선한다. 공정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할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없이도 원도급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 모듈러 인증 건축물에 대해선 분리발주 예외, 자재 직접구매 의무 면제, 현장 감리 면제 등의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 및 협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께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 공법별 사전제작률 산정 기준, 소규모 공사의 심의 생략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제작사를 포함한 업계와 학계는 이번 특별법 추진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한다면 모듈러 공법이 건설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22482660300>

- 키워드 : OSC, 모듈러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② 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건설 인력난·低생산성 ‘돌파구’

기사입력 2026-01-20 06:00:44

| 與野 의원 11명 특별법 공동발의  
 | 1차 부재까지 포함, 개념 재정비  
 |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발주 · 도급 구조 등도 폭넓게 개선  
 | 하위법령 마련 2027년 시행 전망  
 | 인력 고령화 · 숙련공 부족 임계점  
 |工期 단축 · 균일품질 확보에 도움  
 | 탄소배출 줄여 친환경에도 부응  
 | 정부도 모듈러 1.6만호 공급 목표

### 현장 시공 vs 탈현장 건설 비교

#### 전통 현장 시공(RC)

현장 중심 (On-Site) 핵심 개념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타설·양생 생산 방식

기상·인력 상황에 따른 변수 큼 공기

현장 여건에 따른 품질 편차 및 사고 위험 품질·안전

소음분진 및 건설 폐기물 다량 발생 환경 영향

현장 숙련공 중심(고령화 위기) 인력 구조

#### 탈현장 건설(OSC)

공장 제조 (Off-site) 핵심 개념

공장에서 부재·유닛 제작 후 현장 조립 생산 방식

공장·현장 병행 시공으로 획기적 단축 공기

통제된 공장 환경 내 균일 품질 및 안전 품질·안전

탄소 배출 저감 및 현장 폐기물 최소화 환경 영향

공장 기술 인력 중심 (제조업형 전환) 인력 구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전경.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 모듈러 특별법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핵심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혜택
개념 재정립	법령상 정의 명확화(제2조)	2D·3D-부재 등 OSC 기술 포괄
거버넌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제5·7조)	5년 주기 계획 및 심의위원회 설치
표준화	설계·시공·원가 기준 마련(제9조)	표준 유닛 개발 및 전용 품셈 도입
시장 혁신	제작업체 원도급 자격 부여(제14조)	공정 70% 이상 시 직접 수주 가능
공급 확대	공공주택 의무 공급(제17조)	공공주택 건설 시 일정 비율 의무화
투자 유인	진흥구역 지정 및 보조금(제18조)	국토부 장관 지정, 인프라 및 부지 지원
인센티브	건축 인증 및 특례(제26~31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품질 논란으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건축물을 공장에서 제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 공법이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최근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첫 단추다. 올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해 2027~2028년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22482660300>

- 키워드 :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② 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건설 인력난·低생산성 ‘돌파구’

#### 인력난·低생산성 늦 빠진 건설업…모듈러 건축이 돌파구

건설산업이 OSC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장 노동자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이며, 50대 이상 비중이 54.6%에 달한다. 반면 청년층(15~29세) 비율은 7.9%에 불과해 전체 산업 평균(11.3%)을 크게 밀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와 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6000호 공급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는 물론 탄소배출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OSC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국회의 공감대를 얻어 지난해 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간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법 체계가 현장 시공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백정훈 건설연 OSC건축그룹장은 “개별 지침 개정만으로는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법안 들여다보니…정의 재정립부터 도급 구조 개선까지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기술의 정의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3차원 입체 모듈로 협소하게 해석되던 정의를 확장해 2차원 패널, 3차원 유닛, 1차원 부재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했다. 또한 철골, 콘크리트, 목재, 복합재 등 재료에 상관없이 표준화·규격화된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생산 방식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토록 했다. 표준평면과 설계기준, 건설기준, 표준 품셈과 원가 산정, 감리·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도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발주·도급 구조 개선도 핵심이다. 현재는 전체 공정의 70% 이상을 제작사가 수행해도 하도급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전문공사업자가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70% 이상을 수행하면 원도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발주자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 해석으로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별법은 모듈러 공정이 70% 이상일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없이도 제작업체가 원도급을 맡거나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발주 방식에서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 심의는 모듈러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고, 소규모 공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보조금과 융자 지원,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장에 대한 ‘생산 인증’, 우수한 모듈러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 인증’, 소규모 프로젝트의 행정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22482660300>

- 키워드 : OSC, 모듈러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②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건설 인력난·低생산성 ‘돌파구’**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소규모 건축 인정’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 등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맞춰 세부적인 하위법령 제정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711444540309>

- 키워드 : 모듈러, BIM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③ 실효성 높일 하위법령 · 실행체계 구축 관건

기사입력 2026-01-20 06:00:26

| 특별법 이후 과제

| 이르면 8월 구체적 제정안 윤곽

| 사전제작률 · 성능지표 등도 중요

[대한경제=손민기 기자] 모듈러 특별법이 큰 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하위법령 제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모듈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은 올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통상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8월께 구체적인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후속 과제로 하위법령 관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모듈러 건축의 사전제작률 산정 기준이다. 특별법이 철골 · 콘크리트 · 목재 등 다양한 재료와 부재 · 패널 · 박스 단위 공법을 모두 모듈러로 정의함에 따라 각 공법의 특성을 어떻게 정량화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재료와 공법별로 사전제작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심의 생략 소규모 공사 기준 금액 △공장 생산 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의 세부 등급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 실질적인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국토부의 공급 계획과 인증을 심의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전문성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행령에서는 공장 제작 부위의 재료비, 인건비, 장비비 등 투입 가치를 종합 평가해 제작률 정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혜택을 노린 저품질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준공 후 사후 평가나 인증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할 정량 지표와 이를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할 이행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능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평가 ·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주기 표준화도 이행체계의 핵심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의 제조 · 조립 고려 설계(DfMA)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모델 사례처럼 범용 기준을 확산해야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관계자는 "공장 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항목(QCP)과 검사 매뉴얼을 표준화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제작비 · 운송비 등 모듈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표준품셈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35328920302>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④‘건설의 제조업화’ 폭넓게 담을 용어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2026-01-20 06:00:21

|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 자칫 시장 규모 큰 ‘PC 소외’ 우려

| 협업모델 구축도 제도 핵심 지적

PC 및 모듈러 시장 규모 비교		
단위: 억원		
	PC 매출액	모듈러 매출액
2022년	20200	1711
2023년	18550	8064
2024년	11394	5665

자료: 한국PC기술협회, 한국철강협회 및 아주대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듈러 특별법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부 조항과 용어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다. 법안은 2차원 패널과 3차원 유닛 방식을 모두 포괄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모듈러를 3차원 박스 형태(볼륨메트릭)로 인식한다.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 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업계 등은 소외감을 토로한다. 실제로 한국PC기술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C 시장 규모는 약 1조1394억원으로, 모듈러 시장(5665억원)의 2배를 웃돈다.

강태웅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모듈러는 건설 혁신의 하위 개념일 뿐”이라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담으려면 다른 선진국처럼 탈현장 건설(OSC)이나 현대적 건설 공법(MMC)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건설의 제조업화라는 거대 담론을 담기에도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등 건설 선진국은 MMC 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을 7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로 △제1유형(입체형) △제2유형(평면형) △제3유형(부분형) △제4유형(혁신형) 등으로 구분해 공법별로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 모듈러빌딩협회(MBI)도 모듈러를 2차원과 3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는 3차원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공사들은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중소 제작사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임팩트가 없다”며 “기술형 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191635328920302>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④‘건설의 제조업화’ 폭넓게 담을 용어 재정립 필요

이외에도 전기·통신·소방 업계의 분리발주 예외 반발, 자재 직접구매 의무 면제를 둘러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현장 감리 생략에 따른 감리단의 견제, 설계도서 미제출 이슈로 인한 건축사 업계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 부처와 유관기관을 배제하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건설 기준을 시험 적용하고, 여기서 도출된 시행착오를 보완해 특별법을 완성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554294520490>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⑤삼성 자동화공장 구축, GS 생산거점 일원화…신기술·공법 전쟁

기사입력 2026-01-21 06:00:36

- | 현대ENG, 국내 최고층 준공…고층화 매진
- |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기술 혁신 가속
- | DL이앤씨, 공동주택에 모듈러 · PC기술 적용
- | 가전업계 ‘빅2’ 가세…시장 판도 핵심 변수
- | 삼성전자 ‘타이니하우스’ · LG ‘스마트코티지’
- | AI 가전 결합…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초점

#### 주요 대형 건설사 OSC 전략 (핵심 기술 및 인프라 대응 현황)

##### 삼성물산

자동화 공장 내 로봇 기반 제작 공정 구축

##### GS건설

자회사(자이가이스트-GPC) 중심 거점 일원화, 고층 모듈러 기술 확보

##### 현대엔지니어링

공동 연구소(=모듈러랩) 운영, 15층 준공 및 20층 이상 고층화 검증

##### 현대건설

PC 라멘조 공법 개발, 전문기업 제휴 통한 목조 모듈러 적용 확대

##### 대우건설

자회사(대우에스티) 활용 제작, 하프-PC 공법 등 비주거 공간 OSC 적용

##### DL이앤씨

국내 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 준공, 공동주택 부속 공간 OSC 표준화 추진

##### 롯데건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PC 공법 특화, 관련 특허 및 현장 적용을 확대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정부가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탈현장건설(OSC)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민간 시장은 이미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통해 미래 먹거리 시장 대응을 마친 상태다. 특히 단순 공법 변화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가전 설루션이 결합하면서 미래형 주거 패러다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각자의 특화 기술을 앞세워 모듈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시장 개화기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천안에 로봇화 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자동화 공장을 구축했다. 국내외 사업 물량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에서 네옴시티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하이테크 테스트트베드’ 성격이 짙다. 아직은 건설사가 직접 모듈러 제작에 나서진 않지만, 로봇화로 진일보한 건설 생태계를 미리 구현해 스탠바이를 마쳤다는 평가다.

GS건설은 효율성에 집중했다. 별도 공장 신설 대신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의 당진 공장을 활용해 목조 및 스틀 모듈러의 생산 거점을 일원화했다. GS건설은 고층 모듈러 내화 및 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4층 스틀 모듈러 아파트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PC 자회사인 GPC를 통해 30층 이상 고층 조립이 가능한 기초 공사 검증까지 완료하며 분업화된 OSC 체계를 완성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554294520490>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⑤삼성 자동화공장 구축, GS 생산거점 일원화…신기술·공법 전쟁

신공법 개발에 힘을 쓴 곳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국내 최고층인 13층 '용인 영덕 행복주택'을 준공한 주역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제철과 연구소 'H-모듈러 랩'을 설립, 20층 이상 고층화 성능 검증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27가구 공공주택 사업 중 450가구를 모듈러로 전담 시공하며 현장 데이터를 쌓고 있다.

현대건설은 주거용 PC 라멘조 기술을 개발해 벽식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을 추진 중이다. 목조 모듈러 제작 사인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단지 내 부속시설부터 목조 모듈러를 적용하는 등 소재의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DL이앤씨가 자체 공동주택 사업에 모듈러와 PC 기술을 적용 중이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지하주차장 및 옥탑부의 PC 적용률을 50%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OSC 기술은 이미 현장 깊숙이 파고든 상태다.

'가전 공룡'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세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삼성전자의 '타이니하우스'와 LG전자의 'LG 스마트코티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AI 가전과 흠 운영체제(OS)가 결합된 완성형 주거 상품을 지향한다. 이는 집이 현장에서 짓는 고정물을 넘어 공장에서 첨단 가전과 함께 출고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 모델은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배터리(ESS)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AI가 가전과 전기차(EV) 충전기 등의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과 IT 기술이 결합한 이 미래형 모듈러 주택은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물량이 적어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조심스럽지만, 기술력만큼은 이미 완성 단계"라며 "특별법을 통해 원가 기준이 정립되고 공급 물량이 뒷받침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활성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600338550497>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⑥ 제작 역량 고도화… 고층 아파트·첨단 산업시설로 영토 확장

기사입력 2026-01-21 06:00:42

- | OSC 전략 뒷받침하는 제작사들
- | 유창이앤씨, 대규모 주택사업 활발
- | 플랜엠·엔알비 등 신흥강자도 두각

[대한경제=손민기 기자] 대형 건설사의 탈현장건설(OSC) 전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주역은 전문 제작사들의 고도화한 기술력이다. 건설사가 원청사로서 전체 공정을 총괄한다면, 제작사는 실제 유닛과 부재를 생산하는 공급망의 핵심이다. 과거 임시 교실 등 학교 시설에 머물렀던 시장은 이제 고층 아파트와 첨단 산업시설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듈러 제작사들은 고층화와 설계 표준화를 통해 주택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전통의 강자 유창이앤씨는 포스코A&C 모듈러 부문을 인수하며 세종 5·1 생활권 등 대규모 주택 사업으로 보폭을 넓혔다. 금강공업은 진천공장과 보은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1만 유닛 이상의 양산 능력을 확보하고 고층화 접합 기술을 고도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신흥 강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플랜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듈러 공동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에 참여하는 한편, 경북 산불 지역에 재난 구호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며 OSC의 기동성을 입증했다. 엔알비는 지상 30층까지 구축 가능한 '라멘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기술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했으며, 22층 규모의 의왕초평 현장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3D 박스형을 넘어 2D 패널 및 PC까지 포괄함에 따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PC 전문 제작사들의 위상도 재조명 받고 있다. PC 공법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 건설의 주력 공법으로 쓰이며 글로벌 수준의 정밀도와 속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오션플랫폼(옛 한성피씨건설), 까뮤이앤씨 등 1세대 기업들은 5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공장과 아파트 현장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삼표피앤씨, 한국콘크리트산업 등 주요 제작사들이 자동화 더블월 라인과 자립식 코어 기술을 앞세워 양산 능력을 보태고 있다.

KC산업, 자연과환경 등은 적층형 PC 모듈러 주택을 통해 재난 구호 주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이다. 이들 제작사는 연간 수십만 m<sup>2</sup>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물량 공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고층화와 내진·내화 성능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물량 공급의 연속성만 보장된다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OSC 공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558509020494>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⑦내화성능 제도 개선…풀공정 OSC화 속도

기사입력 2026-01-21 06:00:39

| 고층화·다양화…대응 분주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모듈러 건축이 고층화, 다양화되면서 내화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라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 기술진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틸 모듈러의 최대 과제는 화재 시 열에 약한 철골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현재 20층 이상 고층에 필수적인 3시간 내화를 위해 석고보드를 덧대거나 내화밸브을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단일 부재가 아닌 복합 부재로도 내화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건축물의 척추인 코어(계단실 · 엘리베이터)를 현장 탑설이 아닌 탈현장건설(OSC)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험도 한창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강판 기반 코어 구조 특허를 출원했고, 대승엔지니어링도 최근 강판전단벽 기반 코어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엔알비 역시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를 구조 벽체로 활용하는 기준적합성 인증을 획득하며 전체 공정의 OSC화에 다가섰다.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소재를 섞는 방식도 대세다. 지하주차장은 PC로 시공 효율을 높이고, 옥탑이나 부속시설에만 스틸 모듈러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목조 모듈러는 상부 구조의 무게 부담을 줄이는 역할로 활용된다. 실제로 DL이앤씨와 대우건설 등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공동주택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에는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면진 구조와 고강도 접합 볼트 등 특수 기술이 속속 도입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바닥 슬래브의 경우 차음과 두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습식 방식을 쓰는데, 이는 경량화와 자동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재를 활용한 슬래브 건식화 연구가 차세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과 슬래브 건식화까지 이뤄진다면 모듈러 주택의 완성도는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11154158460604>

- 키워드 : PC, 모듈러

### [포토] 학교 교실도 모듈러로 척!척!

기사입력 2026-01-21 11:56:03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엔알비(NRB)가 선보인 학교 PC 모듈러 교사를 살펴보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0915035880355>

- 키워드 : BIM

### 바른컨설턴트, 토종 솔루션 'EG-BIM' 정식 런칭

기사입력 2026-01-21 17:21:25



바른컨설턴트는 자체 개발한 2D·3D 통합 설계 솔루션 'EG-BIM(이지빔)'을 포함한 토목 특화 프로그램들을 정식 런칭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바른컨설턴트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바른컨설턴트는 자체 개발한 2D·3D 통합 설계 솔루션 'EG-BIM(이지빔)'을 포함한 토목 특화 프로그램들을 정식 런칭한다고 20일 밝혔다.

'EG-BIM'은 2D 설계와 3D 뷔어 기능을 통합한 건설특화 CAD다. 정식 출시 전 (주)삼안, (주)한맥기술 등에서 상용화 테스트를 거쳐 실무 안정성을 검증받았으며, 현재 신명이엔씨, 서정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설계사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 3D 모델링 기능까지 추가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바른컨설턴트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주요 라인업은 △IoT 기반 시추조사 디지털 혁신 툴 'GAIA' △한국형 통합 교통 수요분석 솔루션 'TOVA' △하수관망 설계 통합 솔루션 'I-PIPE(S)' 등이다.

오는 3월에는 기초현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KNGIL' 출시도 앞두고 있다.

바른컨설턴트 관계자는 "이번 EG-BIM 런칭은 외산 의존도가 높은 국내 건설 시장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BIM, GIS,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해 건설산업의 디지털전환(DX)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01022334280384>

- 키워드 : BIM

### [2026 ENgine UP] 건화 - 도전의 해...“해외·민간·EPC로 외연 넓힌다”

기사입력 2026-01-21 06:00:53

| AI 기술혁신으로 새 변화의 길 모색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화가 2026년을 ‘과감한 도전의 해’로 규정했다. 설계·건설사업관리(CM)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 더해 해외·민간·개발·EPC(설계·시공·조달)로 외연을 넓히는 성장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2025년 건화의 수주 실적은 4207억원으로, 2024년(5135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지난 2024년 수주 5000억 툴파의 일등공신이었던 ‘사우디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개선 설계사업(1016억원 규모)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없었던 탓이다.

건화는 아쉬웠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올해 다시 한번 해외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규영 건화 대표는 “지난해 사우디 NWC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며 “올해는 사우디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필리핀, 케냐, 블리비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로 수주 무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화는 글로벌사업부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부서가 기술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상호 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사업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는 정치·경제·제도·시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거점국가로 선정하면 초기 수익성이 낮더라도 확장성을 고려해 접근한다.

국내 사업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확장’을 경영 방향으로 삼았다. 기존에 보유한 설계·CM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사업이나 EPC에 진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설한 사업개발팀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가능성의 확인된 사업에 뛰어들어 결실을 맺겠다는 전략이다.

황 대표는 “기존에 우리가 잘해 온 기본을 지키는 동시에 그 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2026년은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신사업에 본격 도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도 주요 과제다. 건화는 올해 신년 목표를 ‘AI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자’로 정했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기술개발(R&D)센터로 운영하고, 사업부서와 연계한 AI-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개최한 ‘KH-AI·BIM 컨퍼런스’를 올해도 확대 개최해 AI·BIM 기술과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AI는 기술자의 검토 시간과 실수를 줄여 설계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AI 활용 여부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건화는?

건화의 ‘건’은 서울 건(建)자가 아니라 군cel 건(健)자를 사용한다. 이는 사명에는 잘 안 쓰는 한자로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도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겼다.

건화의 조직문화는 ‘송무백열(松茂栢悅)’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는 뜻으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문화를 상징한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11038539840581>

- 키워드 : BIM

### [2026 ENgine UP] 동명기술공단 - 내실 성장 통해 수주 4500억 목표...AI 적극 투자

기사입력 2026-01-22 06:00:38

| 2026년, 재정·해외·관광 사업으로 수주 4500억 목표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동명기술공단(이하 동명)은 지난해(4010억원) 창사 최초로 수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잡으면서 수주 45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윤광규 동명 총괄사장은 “지난 해는 수주 목표(42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사상 처음 4000억원을 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었다”며 “올해는 안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한 국내 재정사업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해외 수주 확대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명은 올해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비롯해 기반을 다져온 몽골·중앙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수주 무대를 넓힐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 성과평가(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우수’를 받은 엘살바도르의 태평양철도 타당성 조사사업을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에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윤 사장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 단계부터 정치·계약·환경 등 리스크를 분석하고, 수행 과정에서는 설계원가·일정·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소 보수적이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사업 분야로는 관광·레저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꼽았다.

윤 사장은 “그동안 직접 추진·운영해 온 관광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왔다”며 “연내 착공을 앞둔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생성형 AI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AI 역량이 고도화되면 반복·정형 업무는 AI에 맡기고 엔지니어는 고도의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디지털·AI 전환을 총괄하는 혁신전략실을 신설했고, 매달 AI 관련 회의를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사내 플랫폼인 ‘DMEC ONE’을 구축할 예정이며, 자체 BIM(빌딩정보모델링)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스마트 감리 시스템 연구 및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윤 사장은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안전사고이지만,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업무 혁명에 뒤처지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AI 전환이 엔지니어들의 삶과 성과의 질을 높일 것이라 믿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동명기술공단’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1929년 발표한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을 발표했다. 타고르는 이 시에서 한국이 언젠가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라 노래했고, 동명은 이 메시지처럼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자’는 사명감으로 1960년 창립해 현재에 이르렀다. 동명은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뜻하는 ‘동행동력’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032312010754>

- 키워드 : BIM

### [2026 ENgine UP] 삼안 - “EPC·해외·디지털로 체질 바꾼다”

기사입력 2026-01-23 06:00:18

| 품질·수익성 등 내실 다지며 수주 4400억 재도전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삼안이 2026년을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수주 4400억원 재도전에 나선다.

단순 외형 확대가 아닌, 품질·수익성·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동식 삼안 대표는 “2025년은 수주 실적이 3652억원으로 목표치(44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체질 개선을 이뤄냈던 해”라며 “2026년은 재정건전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주 4400억원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삼안은 올해 ‘멈추지 않는 도전(Challenge), 압도적인 밀도(Density), 힘 있는 조직(Powerful)’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 비용 구조 개선, 사업 프로세스 최적화, 설계품질 향상 등 체질 개선을 지속한다.

수주 전략도 다변화한다.

삼안은 그동안 재정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PQ(사전적격성평가) 기준 하향 평준화로 수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민간·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국내·해외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해 수주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최 대표는 “해외사업은 무리한 확장보다 선별 수주와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와의 컨소시엄, 검증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밀착형 진출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EPC(설계·시공·조달) 분야와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삼안은 종합 설루션 기업으로의 탈바꿈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증설공사,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 EPC 사업에서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대세로 떠오른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집중하기에 앞서 빌딩정보모델링(BIM) 역량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최 대표는 “엔지니어들에게 AI는 단순 문서 작성 보조를 넘어 설계 대안 검토, 기준·시방 검토, 반복 산출물 자동화 등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AI는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학습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삼안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이지빔(EG-BIM)’ 등 자체 BIM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BIM 기반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삼안은?

삼안은 ‘기술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경영이념 아래 환경·건설 분야 전문기술을 축적해왔다. 정직과 정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

삼안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단순 기술자가 아닌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토털 설루션 프로바이더’다. 조직문화 또한 신뢰·성과·혁신·능력·공동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협업과 도전을 장려한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11618102820686>

- 키워드 : PC

### 건설 신소재 '그래핀 콘크리트'가 뜬다

기사입력 2026-01-22 06:00:23

| 한별산업, 美 나노스판社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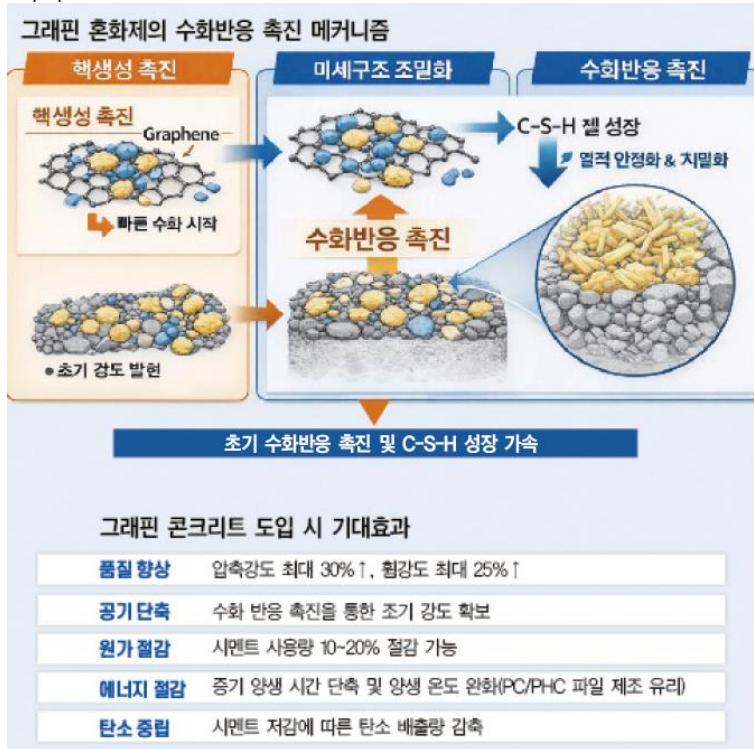
| 그래핀 혼화제 한국에 도입

| 극소량 그래핀 투입만으로

| 콘크리트 강도 향상 등 강점

| 탄소저감·고강도 구현 기대

| 상용화 위한 연구개발 '박차'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미래형 건설 소재로 기대를 모으는 '그래핀 콘크리트'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며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해외 선진 기술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탄소 저감과 고강도 구현이라는 건설 산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별산업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나노기술 전문기업 나노스판(NanoSpan)의 그래핀 혼화제 브랜드 스판크리트(SpanCrete)를 수입하며 국내 도입의 물꼬를 틸다.

나노스판은 그래핀 분산 및 콘크리트 적용 분야에서 19건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이미 인도의 자동차 테스트 트랙과 히말라야 조지라 터널(14km)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에서 그래핀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 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11618102820686>

- 키워드 : PC

### 건설 신소재 '그래핀 콘크리트'가 뜬다

한별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극소량의 그래핀 투입만으로 콘크리트 미세구조를 치밀하게 만들어 강도 향상과 균열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레미콘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다양한 건자재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국내 환경에 맞춘 최적의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다.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의 한 겹을 분리해 만든 탄소막으로, 2차원의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나노물질이다. 일반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앞서 나노실리카, 카본나노튜브 등의 나노물질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됐으나, 입자가 뭉치는 응집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반면 그래핀은 분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나노스판의 스판크리트는 물리적 박리를 통해 그래핀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분산형 그래핀으로, 우수한 분산성과 전기 열전도성, 유동성, 강도 증진 효과 등을 가진다.

그래핀을 콘크리트에 첨가할 경우 압축 강도는 20~30%, 훨강도는 15~25% 수준으로 향상된다. 특히 수화 초기 단계에서 핵 생성을 촉진해 초기 강도 발현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는 PC 제품이나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 시 필수적인 증기 양생 공정에서 양생 시간과 온도를 낮춰 에너지 비용과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도 유리하다.

그래핀 콘크리트는 친환경 측면에서도 탁월하다. 동일 강도를 구현할 때 시멘트 사용량을 10~20%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향후 하이퍼루프(진공튜브열차)와 같은 차세대 운송 인프라 건설에도 핵심 소재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그래핀 콘크리트는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전 단계에 있다. 외산 기술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고, 국내 기술 진 역시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그래핀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초현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래핀을 선정하고, 원천기술을 넘어선 상용화 기술 개발과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 세계 그래핀 시장 규모는 지난해 9억9000만달러에서 오는 2033년 83억달러로 연평균 36.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래핀은 시멘트 수화반응을 촉진해 초기 강도 발현 속도가 빨라 PC부재나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 효과적"이라며 "기존 KS인증 혼화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s://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11635380400690>

- 키워드 : 모듈러

###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농식품부는 '엇박자'...왜?

기사입력 2026-01-22 06:00:26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력 급증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나섰으나, 일부 부처가 이를 배제하며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자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과정에서 자체가 제안한 모듈러 공법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의해 반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돋기 위해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주거 지원 사업으로 올해만 30여개 지구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각 자체는 신속한 인구 유입과 공기 단축, 민원 감소 등을 위해 모듈러를 선호하고 있지만, 예산을 준 농식품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RC) 공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증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승인하기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선정된 남원시 시범사업이 준공되고 모듈러 특별법 지원이 전면 확대되는 2027년에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러한 인식은 타 부처와 견주어도 크게 뒤처져 있다. 건축물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이미 교육부가 전국의 학교 리모델링 및 중·개축에 대거 도입하며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국방부 역시 군 간부 숙소 건립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표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용인 등에 13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준공돼 주민들이 이미 실거주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층 이상의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이미 시작했거나 앞둔 상황이다.

농식품부의 행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책임회피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농식품부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며 “지자체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공법을 눈앞에 두고도 부처의 압박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156072060775>

- 키워드 : 스마트건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LH,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에서 K-TECH 전시관 운영

기사입력 2026-01-22 13:25:25

| 전시 통해 MOU 22건(73억원), 계약 19건(18억원) 등 총 91억원 실적 지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MOU 22건, 계약 19건 등 약 91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 및 인프라 시장을 대표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왔다. LH는 전시 참여 기업에 각종 자금과 행정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B2B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전시 기간 중 총 390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을 통해 협약체결(MOU) 22건(73억원 규모), 계약체결 19건(18억원 규모) 등 총 91억원(90억7800만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 성과를 확보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LH K-TECH 전시관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 제품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까지 전 영역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735190730887>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데이터센터

### “PC 넘어 모듈러까지…탈현장건설 전반 아우르는 포럼”

기사입력 2026-01-23 06:00:47



22일 한국PC기술협회 국제세미나 및 경기총회에 참여한 회원사 및 강연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김민수기자kms@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PC기술협회 국제세미나 및 경기총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를 넘어 모듈러까지 아우르는 탈현장 건설(OSC) 전반을 짚어보는 포럼으로 마련돼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올해 9월 창립 20주년을 앞둔 협회는 총 9개의 다채로운 강연을 통해 PC 공법부터 모듈러, 목조, OSC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상호 SK에코플랜트 프로는 첨단 산업과 함께 성장할 PC 산업의 미래 성장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배 프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프로젝트의 1단계 공정에만 총 10만여매 이상의 PC 부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반도체 팹(Fab)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며, 모듈러 공법 등을 활용한 공기 단축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 연구 성과 공유도 이어졌다. 임석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발주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는 ‘인필(In-fill) 결합형 3D 모듈러 공동주택’ 연구 현황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4년 개발한 벽식조 PC모듈러 아파트 기술(WPM)을 업그레이드한 라멘조 PC모듈러 기술(RPM)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 전문위원은 “WPM은 단위 유닛으로 평면을 구성해 공간의 규모 제한과 가변성의 한계가 있어 4층 이하 층수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며 “반면 RPM은 프리패브율 90% 이상을 만족하면서 가변성과 확장성을 만족하는 기술로, 중고층 일반 공동주택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735190730887>

- 키워드 : PC, OSC, 모듈러, 데이터센터

### “PC 넘어 모듈러까지…탈현장건설 전반 아우르는 포럼”

이외에도 이동길 동진피씨이 이사의 대형 물류센터 곡선램프 PC화 사례, 나금옥 동서피씨씨 부사장의 공동주택 PC 공법, 김성진 한국콘크리트산업 상무의 무타설 아치공법 등 현장 중심의 발표가 진행됐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모듈러 특별법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안용한 한양대 교수는 고성능 PC 모듈러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소개해 전문성을 더했다.

한편 세미나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올해 사업 계획이 논의됐다. 협회는 49세 이하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젊은 PC 아카데미’를 개설해 기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재한 기술 자료와 설계·시공 사례를 디지털화하는 ‘PC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PC 기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논문 부문에선 충북대 김선훈·경기대 이해지·서울대 안재연이 차례로 금·은·동상을, 설계 부문은 한양대 재윤호·충북대 신희준이 은·동상을 받았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728530250886>

- 키워드 : PC, 모듈러

“日 PC제도 시스템화해 하자발생 현저히 줄었죠”

기사입력 2026-01-23 06:00:50

- | 한국PC기술협회 국제세미나 성료
- | 1960년대부터 PC공법 활용 눈길
- | 오피스 · 경기장 등 적용범위 확대
- | 심사시스템 체계적 · 인적관리 철저
- | 한국PC기술협회 벤치마킹
- | 하반기 시범 운영 실시 계획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PC기술협회 국제세미나에서 이시카와 신스케 일본프리파브건축협회 PC 건축부회 부위원장이 일본의 PC부재 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ays77@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일본의 선진적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품질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 건설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시카와 신스케 일본프리파브건축협회 PC건축부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PC기술협회 국제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1989년부터 정착된 일본의 인증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신스케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협회의 인증제를 거친 PC 부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전쟁과 지진으로 무너진 건축물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리캐스트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왔다. 60여 년이 흐른 현재 일본의 PC 공법은 중고층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 경기장, 주차장, 물류창고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37년 전부터 시행된 생산공장 및 기술인력에 대한 엄격한 인증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728530250886>

- 키워드 : PC, 모듈러

### “日 PC제도 시스템화해 하자발생 현저히 줄었죠”

일본 프리파브건축협회 PC건축부회는 현재 △PC부재 품질 인정사업 △PC공법 시공관리 기술자격 인정사업 △PC부재 제조관리 기술자격 인정사업 등 크게 3가지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1989년 도입된 PC부재 품질 인정제도는 중고층 건축용 부재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설계 기준 강도 60 MPa까지의 'N(노멀)인정'과 60MPa 초과 120MPa까지의 고강도 부재를 다루는 'H(하이)인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일본 내 N등급 87개사, H등급 28개사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1곳의 인증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 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해 되, 실제 공장 조사는 외부 제3자 기관인 '베타리빙(Better Living)'에 위탁해 공정성을 기한다. 베타리빙은 직접 공장을 방문해 품질 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협회는 매년 공장을 대상으로 실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 공사 공통 시방서에 'PC부재는 프리파브건축협회의 PC부재 품질 인정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섭 한국PC기술협회 부회장(삼표피앤씨 전무)가 일본의 PC품질인증제도에 대해 통역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다. 일본은 2013년부터 공공주택 건설 시 반드시 협회가 인정한 'PC공법 시공관리 기술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제조 공장의 레벨업을 위해 'PC부재 제조관리 기술자 자격제도'를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공장당 2명 이상의 유자격자 상주를 의무화했다. 현재 시공관리 기술자는 누적 494명, 제조관리 기술자는 490명에 달한다.

행사에서 통역을 맡은 이진섭 한국PC기술협회 부회장(삼표피앤씨 전무)은 “과거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품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인증제가 시스템화되면서 하자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한경제

- 관련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1221728530250886>

- 키워드 : PC, 모듈러

### “日 PC제도 시스템화해 하자발생 현저히 줄었죠”

한국PC기술협회 역시 이러한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올해부터 자체적인 인증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올 상반기 중 제도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대형사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듈러 특별법’의 공장 인증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원호 한국PC기술협회 회장은 “하반기 본격 시행될 공장 및 기술자 인증제도는 국내 PC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http://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대한전문건설신문

- 관련링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27>

- 키워드 : 모듈러, 스마트건설

### 모듈러 건축·로봇이 스마트건설 이끈다

남태규 기자 입력 2026.01.23 07:40 수정 2026.01.23 08:16

- | “생산성 제고와 안전 위해 필수”
- | 정부, 모듈러주택 공급축 육성
- | 10대 건설사 로봇 활용 50종 넘어
- | 현장점검과 순찰엔 AI 기술 적용

국내 건설산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인력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조립식) 건축과 로봇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건설’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며 생산성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 ◇‘모듈러 주택’ 공급 대안으로 부상…제도적 기반 마련 착수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택 공급의 핵심 대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건축의 정의와 인증 체계 구축, 각종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청년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 발주 물량도 기존 1500호에서 3000호 이상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목조 모듈러 기술을 통해 농촌 주거 안정 사업을 수행했으며, 시흥 거모 지구에 14층 규모의 스타일 모듈러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과 연구소를 설립해 실증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해외 모듈러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 ◇건설 로봇 50여 종 현장 투입…시공·안전관리 효율 극대화

모듈러 건축과 더불어 건설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도 스마트 건설 확산을 이끌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현재 현장에서 개발 및 활용 중인 로봇은 50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도입해 현장 혼잡도를 낮췄으며, 대우건설은 무인 굴착과 타설 작업 실증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GS건설은 4족 보행 로봇과 AI를 연계해 외벽 크랙을 감지하고 사각지대를 점검해 현장 사고율을 25% 줄였다. 롯데건설 역시 드론 AI 영상 분석과 로봇 순찰을 결합한 시스템을 아파트 현장 80%에 적용해 안전사고 예방률을 35% 높였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단지 입구부터 세대 현관까지 이어지는 무인 배송 로봇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삼성물산은 홈 AI 컴파니언 로봇을 통해 가전 제어 및 응급 알림 서비스를 실증 중이다.

#### ◇낮은 수익성과 정책 지원 부족은 해결 과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모듈러 주택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20~30% 비싼 상황이며, 과거의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 관련링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27>

- 키워드 : 모듈러, 스마트건설

### 모듈러 건축·로봇이 스마트건설 이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건설 로봇 시장은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로봇 생산 규모 중 건설 분야 비중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스마트 건설 R&D 투자가 5년간 약 1970억원 규모인 반면, 산업부의 2025년 단일 연도 로봇 R&D 예산은 2149억원에 달해 정책적 관심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07>

- 키워드 : 스마트건설

## 건설기술인협-스마트건설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김현재 기자 승인 2026.01.19 15:18

|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경력관리 효율성 제고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내일(20일) 스마트건설교육원(이사장 박영태)과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협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국토안전교육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건설기술인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100만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재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76>

- 키워드 : BIM

## ‘2026 부동산 트렌드’ 3대 키워드, ‘강요된 선택’, ‘공간·진화’, ‘탄성한계 늘리기’

하종숙 기자 승인 2026.01.20 10:02

| 희림·알투코리아·한국갤럽, ‘2026 부동산 트렌드’ 발간… 3대 키워드 및 7대 트렌드 선정

| 7대 부동산 트렌드-‘실용의 재발견’·‘소유 보다 경험’

| ‘무마찰 소통’·‘적시적변’·‘내 곁의 케어’·‘표면장력’·‘그린프리미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2026 부동산 트렌드’ 3대 키워드로 ‘강요된 선택’, ‘공간·진화’, ‘탄성한계 늘리기’가 제시됐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2026 부동산 트렌드 설문조사’를 발간, 3대 부동산 핵심 키워드 선정과 함께 7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된 7대 부동산 트렌드는 ▲실용의 재발견 ▲소유 보다 경험 ▲무마찰 소통 ▲적시적변 ▲내 곁의 케어 ▲표면장력 ▲그린프리미엄로 선정했다.

### TREND 2026



2026 부동산 트렌드. 사진제공=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 ■ 2026 부동산 트렌드 3대 키워드

‘강요된 선택’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압박받는 상황을 뜻한다. AI·초개인화 흐름 속에서 가치 소비가 강조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좌절은 결국 실용성을 우선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간·진화’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공간이 적응하며, 아파트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탄성한계 늘리기’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생존을 우선하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AI 활용, ESG 경영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버팀목을 확장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 ■ 2026 부동산 7대 트렌드 ■

희림건축, 알투코리아, 한국갤럽은 3대 키워드를 토대로 2026 부동산 7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7대 부동산 트렌드는 ▲실용의 재발견 ▲소유 보다 경험 ▲무마찰 소통 ▲적시적변 ▲내 곁의 케어 ▲표면장력 ▲그린프리미엄로 선정했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76>

- 키워드 : BIM

## ‘2026 부동산 트렌드’ 3대 키워드, ‘강요된 선택’, ‘공간·진화’, ‘탄성한계 늘리기’

### ■ ‘실용의 재발견’

주거시장은 공급 부족과 규제로 서울 신축·수도권 상급지 쓸림과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며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보다 거주 가치와 효용을 중시하는 ‘비자발적 실용주의’ 속에서 주거 선택의 선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 소유 보다 경험

소비 기준이 일상적 활용도와 체감 효용으로 이동하면서 주거 선택이 유연해지고 있다. 주거는 장기 소유가 아닌 생활 플랫폼으로 인식되며 서비스 결합형 주거와 렌탈·구독 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 ■ 무마찰 소통

사람들은 감정적 부담을 줄이는 선택적 소통을 선호하며, 이 흐름이 공간 선택으로 이어져 공유 라운지와 포커스 공간, 코리빙 주거의 확산이 예상된다.

### ■ 적시적변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 지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가변형 구조와 AI·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적응형 주거공간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 ■ 내 곁의 케어

유병장수가 보편화되면서 치료를 넘어 일상적 건강관리와 조기 대응이 가능한 주거·헬스케어 결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AI와 IoT 기반 스마트홈 고도화로 주거는 거주자 상태를 인식하고 원격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 ■ 표면장력

건설·부동산 산업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악화로 산업 내부에는 구조적 부담과 긴장이 누적되고 있다. ESG 압력과 인력·비용 제약 등을 돌파할 해법으로 AI·자동화와 BIM·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 ■ 그린프리미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성능이 부동산 가치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며 그린프리미엄이 확산되고 있다. 비친환경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이 커지면서 ZEB 설계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전환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트렌드는 글로벌 건축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인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리서치 그룹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 변화, 부동산 시장과 정책 분석, 학계 및 기업 전문가 의견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선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37>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 “10년 멈춘 건설감정 실무 기준 재정비… 전문성·신뢰도 ↑”

김현재 기자 승인 2026.01.21 11:02

| [인터뷰] 신현기 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장

| “건설감정 실무 기준서 출간… 법원·국토부·감정 분야 간 협업 토대 마련”

| ‘건설감정실무지침(개정 및 보완사항 중심)’ 2026년 1월 출간

| 전국 100개소 법원 민사과 배포… 재판 실무 기준서 역할 기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건설감정실무지침(개정 및 보완사항 중심)’은 10년간 정체돼 있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기준서로 이번 출간이 건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국토교통부·감정 분야 간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현기 건설감정실무지침 편집위원장의 출간 배경 설명이다.

한국건설감정사회 건설감정교육원은 이달 ‘건설감정실무지침(개정 및 보완사항 중심)’을 출간, 이번 개정서로 2016년 이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한 점에서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번 개정서의 핵심 취지는 무엇인가.

▲ 법원행정처 기준은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BIM, 스마트건설, 신공법·신자재가 이미 일상화됐다. 이번 개정서는 기술 발전과 현장 현실을 감정 실무에 반영해 실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도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 건설감정은 법률과 기술의 접점에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술 기준과 법원의 감정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왔다. 이번 개정 작업이 국토부와 법원 간 협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건설감정실무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 이번 개정서는 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기본구조와 하도급법을 다뤄 감정인의 법률 이해를 강화했다.

제2장은 실무 수요가 가장 높은 업종별 하자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제3장은 업종별 감정사례를 통해 실제 법원 감정 과정에서의 판단 논리와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편집위원회는 현업에서 활동 중인 법원 건설감정인들로 구성돼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재판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관련링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37>

- 키워드 : BIM, 스마트건설

## “10년 멈춘 건설감정 실무 기준 재정비… 전문성·신뢰도 ↑”

감정서는 곧 재판의 판단 근거이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지침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앞으로의 계획 및 업계에게 보내는 한마디.

▲ ‘건설감정실무지침’은 출간과 동시에 전국 약 100개소 법원 민사과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출판을 넘어 실제 민사 재판 현장에서 감정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정인은 물론 재판 실무자도 동일한 기준과 언어를 공유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번 법원 민사과 발송은 건설감정이 사법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재 기자

